KT, 2023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2001년부터 총 23년간 후원 지속

KT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파트너로 함께한다.

KT는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조인식'을 갖고 2023년까지 후원 협약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인식은 11일 열린 한국 대 이란 국가대표 평가전 하프타임에 진행됐으며,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로 향후 4년간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지난 2001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한 KT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총 23년간 후원을 지속하게 된다. 이 기간은 2022년 카타르 FIFA월드컵 시즌도 포함된다. KT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의류(트레이닝복) 광고권과 플레이어 에스코트 운영권 등의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 공식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경기장 내 보드 광고권, 대표팀 초상권, 엠블럼 사용권 등 권리도 주어진다.

행사에 참석한 KT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왼쪽)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 축구가 새로운 신화를 쓰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기대에 부응해 대한민국 축구의 선전과 축구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노동천시특별시, 서울시

기자 수첩

김 현 정 〈정책사회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유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서울시청을 방문해보길 바란다. 영화가 현실에 그대로 재현돼 있다.

"뼈 빠지게 일만 했다!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직을 무시하지 마라!"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오늘로 13일째 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공무직 차별 금지,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 노조 추천인 포함 등을 뼈대로 하는 공무직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에서 일어나는 노조와 노조의 충돌은 을대을의 혈투가 벌어지는 영화 기생충 속 박사장네 지하실을 떠올리게 한다.

서공노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시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사실일까. 시의회가 출장여비, 명예퇴직수당 등 3개 항목에 대해 비용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1년에 22억5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는 올해 서울시 예산 35조7843억원의 0.00628% 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지난 2018년 27억원을 쏟아 부어 만든 종로구 창신동 이음피움 박물관이 더 혈세 낭비다. 올 1월 서울시의 박물관 입장객 현황에 의하면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방문객 수는 하루에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 수는 2061명(2019년 4월 기준)이다. 박물관을 짓는데 든 돈보다 17% 적은 비용으로 공무직 2000여명의 노동권을 1년 내 보장할 수 있다.

서공노는 4일 "떼쓰면 다 되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축축 처지는 출근길, 시청 앞 광장에 빨주노초파남보 고운 빛깔의 꽃을 심어 당신을 기분 좋게 한 게 누구인지, 청사 내 화장실은 어떻게 24시간 깨끗이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 취재원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월급을 더 달라고, 복지를 좋게 해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다.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당신의 동료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hjk1@metroseoul.co.kr

포스코 경영이념 담은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가 '2018 기업시민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기업시민보고서는 포스코가 매년 발행하던 지속가능보고서인 '포스코리포트'를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체계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포스코의 지난해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지속가능 성과를 비즈니스, 사회, 사람 세 영역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친환경 신제품 ▲전과정평가(LCA) 관점에서 본 철의 친환경성 ▲환경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 포스코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사회 영역에서는 ▲저출산 문제해결 지원활동 ▲벤처지원 프로그램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기업시민 활동 성과를 다뤘다.

사람 영역에서는 ▲안전과 보건 ▲인재육성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일하는 방식 효율화 등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분야별 성과를 담았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기업시민보고서 CEO메시지를 통해 "포스코는 현대 사회에 속한 건전한 시민처럼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과 공생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공감, 배려, 상생의 마음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10대 원칙의 이행활동 및 성과를 담아 공신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6월 13일 (음 5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4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과 행동을 특히 조심. 60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귀중한 정보를 얻으니 이로운 날. 72년생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84년생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 37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 노력이 중요. 49년생 사람은 늘 실수를 되풀이하나 반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61년생 실속은 많지 않다. 73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85년생 사랑에는 약간의 망상이 있다.

호랑이 38년생 자랑보다는 주변에 재물을 베풀자. 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62년생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74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86년생 이것저것 손을 대면 하나도 성공하기 힘들다.

토끼 39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잘 잡자. 51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 6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75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7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용 40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52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 64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76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88년생 맡은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

뱀 41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5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65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77년생 베풀 능력이 있을 때 베푸는 것도. 89년생 바쁘기는 하지만 실속은 없다.

말 42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4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6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78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90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유리.

양 43년생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이다. 67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79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알아서 피하라. 91년생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원숭이 44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56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 6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80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92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닭 45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5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69년생 공들인 탑은 쉬게 무너지지 않는다. 81년생 노력한 보답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 93년생 계획에 없던 변동 수가 생긴다.

개 46년생 돈거래는 하지 마라. 58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니 정도를 지켜라. 70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82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94년생 의외의 지출에 신경 써야 하는 날.

돼지 47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다. 5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71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거짓말하지마라. 83년생 변화가 와도 영향이 미미하다. 95년생 내 잘못을 인정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7			
7				5				4
	2	9				1	7	
		2	7		4	9		
9		3				8		7
		8	1		3	5		
	6	5				4	1	
3				4				8
			6		9			

				8	9			7
		9		3	2	6		
	2			7		8		
9	4				3	7	5	
6	3				7	9	1	
	5			6		2		
		7		9	1	3		
				4	5			8

스도쿠 정답

3	5	7	9	2	6	4	8	1
8	6	2	1	4	5	7	9	3
9	1	4	8	7	3	5	6	2
6	2	5	3	9	1	8	7	4
7	4	8	5	6	2	1	3	9
1	3	9	4	8	7	2	5	6
5	7	1	6	3	4	9	2	8
2	9	6	7	1	8	3	4	5
4	8	3	2	5	9	6	1	7

5	4	6	8	1	7	3	9	2
7	3	1	9	5	2	6	8	4
8	2	9	4	3	6	1	7	5
6	5	2	7	8	4	9	3	1
9	1	3	2	6	5	8	4	7
4	7	8	1	9	3	5	2	6
2	6	5	3	7	8	4	1	9
3	9	7	5	4	1	2	6	8
1	8	4	6	2	9	7	5	3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사람을 잘 뽑으려면

자영업을 하는 업주와 큰 기업을 총괄하는 경영자의 공통점은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가게이든 큰 기업이든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우선하는 건 무엇보다 능력이고 인성이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고 조직의 성쇠까지 좌우한다.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문제도 크다. 지난번 상담을 온 자영업자는 시내에 큰 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청한 것은 직원 선발 때문이었다. 그는 "이력서에 있는 생년월일로 사주를 보면 어떨까 싶네요." 라며 말을 꺼냈다. 아예 지원자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태어난 시까지 받을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만둔 직원이 큰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결국 내보내긴 했지만 후유증이 너무 나 컸다. 그렇게 하라거나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 몇 가지 조언만 해주었다. 사주에 칠살(七殺)이 많으면 도벽으로 물건 기밀문서를 빼돌리기도 한다. 살기(殺氣)가 없는 사람 재물기운이 무난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다. 합이 많으면 사람은 좋으나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 인성(印星)이 있고 정관(正官)이 있으면 꾸준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 사주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책임감이 강하고 남과의 협업을 잘한다. 상관이 있고 정관이 옆에 자리하며 재성이 조화를 이루면 재물을 찾아 효율적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만으로 능력이나 인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힘들다. 사주로 사람을 전적으로 판단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고민이 많은 고용주들에게 사주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일이 생년을 묻기도 난감한 일이다. 그럴 때 이력과 평판 면접을 신중히 하여 옆의 직원들과 행동의 조합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작은 도움은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23호